

## 폴 투르니에의 명저

# 『인생의 사계절』과 『노년의 의미』

### I

“인격의학”의 주창자인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는 이미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의 저서만 해도 십 여권에 이르며,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뿐 아니라 목회 상담가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가’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분이다. “현대 의학의 문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들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에 뒹겨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인격에 대해서보다는 병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는 말 속에서 ‘인격의학’의 주창자로서의 생각과 삶을 함축적으로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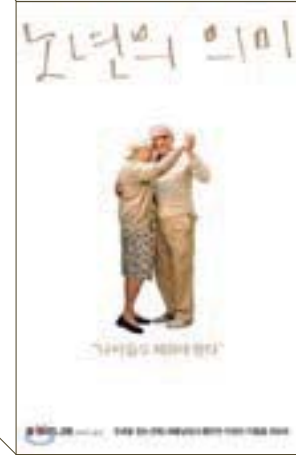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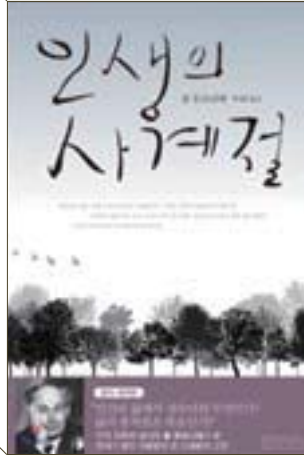
그의 영향력은, 미국의 기독교사치과의사협회(CMDA, the Christian Medical and Dental Associations)에 The Paul Tournier Institute가 있고, 그의 사상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Association Paul Tournier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인의학을 주제로 한 국제학회가 해마다 모이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2006년에는 크리스챤리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에서 그의 저서 『인간의 의미(Meaning of Person)』를 복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50권의 책에 선정하기도 했다.



**김민철** 활액종양내과 전문의로 현재 대자인 통합암병원 원장이며, 전주예수병원장, G생통합암병원장을 역임했다. 1994년 르완다 난민 구호 팀장으로, 그 후 SIM국제선교회 소속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일하기도 했다. 캐나다 TWU에서 선교학을 공부하였고 VIEW(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 서는 객원교수로 생명 윤리를 가르치기도 한다. 한국누가회(CMF) 이사장, <누가들의 세계>, <의료와 선교> 편집장, 한국기독교 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성경의 눈으로 본 첨단의학과의료』, 『의료 세계관이 결정한다』, 『한국 사회 발전과 기독교』(공저), 『문서선교사 웨슬리 웨스트워스』(공저), 번역서로 『상처 받은 세상, 상처 받은 치유자들』, 『의료의 성경적 접근』,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 등이 있다.

폴 투르니에 저 | 박명준 역 | 아바서원

폴 투르니에 저 | 강주현 역 | 포이에마



## II

아바서원에서 『인생의 사계절』이 다시 출판되었을 때(2013.2), 아주 오래 전에 이 책을 읽은 기억이 나서 책장 구석구석을 뒤져 누렇게 변한 문고본(종로서적)을 다시 꺼내 본 기억이 난다. 젊어서 읽었던 그 책에는 의외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이가 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이였다. 칼프리트 폰 뒤르크하임이라는 심리치료가 자신을 찾아온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그 노인은 젊은 사람들조차도 포기한 산을 자신이 등반했다고 환한 표정으로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다. 뒤르크하임 교수는 그 노인에게 단호하게 “그런 일은 불필요한 허세입니다”라고 말한다. “결국 단념해야 할 행동을 자연법칙을 거슬러 잠깐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의 기쁨이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데 달려있다면, 그런 기쁨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절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했다. 아직 젊었을 때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밑줄을 그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았다. 그런데 어느덧 내 나이가 육십이 넘고 보니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

다. 나이 들어서도 젊은이인 것처럼 살려고 하면 사실 젊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또 나이든 삶의 소중한 의미도 느껴보지 못하면서 말이다.

어쨌든 아바서원에서 펴낸 『인생의 사계절』을 다시 일독하게 되었다. 그런데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라는 장은 있지만 사계절 중 겨울이 나오질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생의 의미”라는 장이 마지막이었고 겨울을 대신하고 있었다. 이것이 아마도 “가을에서 겨울로”에 해당하는 이 책, 『노년의 의미』가 나올 거라는 암시였는지도 모르겠다.

『노년의 의미』(Apprendre A Vieillir, 1971)를 출판한 포이에마는 헨리 나우웬/윌터 게프니의 『나이 든다는 것』(Aging: The Fulfilment of Life, 1974)이라는 책을 앞서 2014년 말에 번역·출판하였다. 둘 다 이미 쓰여진 지 40년이 지난 책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야 번역·출판하여 소개된 것이 잘 준비되지 않은 채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유럽이나 미대륙에 비해 한국은 그만큼의 사회·경제적 시차가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III

그 격차 때문일까? 구절마다 원론적으로 옳고 마 음 속에서 우러나는 공감감이 있었으며, 때로 감동적 이기까지 한 이 책의 내용들이 문득 이질감을 느끼 게 하는 순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1970년대의 유럽에서 기록된 이 책의 내용을 같은 공감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 구심이 들었다는 말이다. 물론 투르니에가 책 앞부 분에서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않고 그런 대로 여 유롭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 리는 사람들(36쪽)'로 독자층을 한정하고 있기 때 문에 그것이 꼭 저자의 잘못으로 연결될 일은 아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내 가 느끼는 불편함은 은퇴를 직면한 많은 한국인들 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를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투르니에가 이 책을 쓰던 당시 유럽의 노동 현실 은 이 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미 섬유회사의 경 우 노동시간이 주당 6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 들었고, 철도 종사원의 경우도 연간 39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 있었다. 미국

도 비슷한 상황으로 평균 노동시간이 주당 41시간 이었고, 스위스의 경우 1950년대부터 연간 3주일 의 유급휴가와 연방정부가 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여 가 시간의 증가는 퇴행적이고 따분한 삶, 더 나아 가 불안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 고 있다. 이 말은 저자가 말한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는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중 산층이 처한 현실이 1970년대 유럽 상황과 같다고 전제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은퇴를 앞둔 중· 노년층이 유럽의 노동자 수준에 버금가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는 한국인 독자들이 느끼는 이질감은 정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 나아가 투르니에가 『인생의 사계절』에서 “일반적 으로 성인은 젊은 날의 이상을 간직하고 살아갑니 다. 사실 성인기의 활동에 필요한 활력은 대개 청년 기의 이상에서 나옵니다”라는 말도 원론적으로 수 궁이 가는 옳은 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학생의 행복이 교육 목표'인 스위스의 교육을 받는 청소년



과 달리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청소년이 받는 왜곡된 교육, 즉 성취지향적 경쟁주의를 동력으로 추진되는 교육 현실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 심각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한국의 현실과는 괴리가 없지 않으나, 그것은 오히려 유럽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특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책은 여전히 국경을 넘어서 세대를 이어가며 노년을 맞이하는 중년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년과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교과서로서의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VI

이 책은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일과 여가'에서는 일에 매달려 성취지향적 삶을 살면서 평소에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프로이트를 빌어 어린 시절에서 성인이 되는 자연적 단계, 즉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전환점을 설명하고, 용을 빌어 자연적 단계에서 두 번째 문화의 단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인생의 두 전환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 은퇴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전반기에는 생물학적 본능을 따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더 중요했지만, 후반기에는 점진적으로 여가 활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르니에는 노년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 그 준비를 차일피일 뒤로 미루지 말고 삶의 절정기에 서서히 단계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장에서는 성공적인 은퇴를 결정하는 사회적인 요인들을 살펴본다. 노인의 운명은 사회의 도덕적 분위기나 노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노인이 살아가는 특정한 환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축복과 같은 것이나 가족, 친구 관계 및 노년을 보내는 장소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은퇴자와 마찬가지로 노인도 두 부류로 구분된다고 한다.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사교적이고 편안해 보이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까다롭고 이기적이며 독선적이어서 혐오스런 노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노인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는 과거에 의해 결정되며 노년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성향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돋보기라고 한다. 따라서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마음가짐의 변화, 일종의 자발적 회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4장에서는 노년이 제2의 삶이 되기 위해서 여가 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판에 박힌 일이 아니라 문화적 삶으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여가활동은 '제2의 이력'으로 발전시킬 것을 권유한다. '제2의 이력'이란 자유로운 활동이면서 다분히 사회성을 띤 동기에서 시작되며 돈과 권력을 위한 직업 활동과는 달리 노년에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누리던 권력, 직업인으로 일할 때 경쟁에서의 승리와 지위에 대한 맛, 명령하는 특권 등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시작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힘을 추구하는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한다.

5장에서는 유한한 인생을 수용하고 미완성임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늙어 가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가 사회적인 지위가 아닌 본래의 인간적인 자신의 모습에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려는 욕구라는 것이다. 노년이 요구하는 포기는 몸과 관련된 것이지 마음과 정신에 관련된 것이 아니며 행동에 관련된 것이지 존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서 독점욕을 떨쳐 버리고 더 큰 사랑을 베풀고 본능을 승화하여 이익이 아니라 헌신에서 얻는 즐거움을 찾는다면, 오늘날의 돈 중심 소비사회를 보완하여 ‘나눔의 사회’로 바뀌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긴다는 것은 세상을 등진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폭 넓고 더 깊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라는 데까지 저자는 나아간다. 삶에 여유가 있는 우리나라의 독자층,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숙고해 들어야 할 메시지일 것이다.

6장은 ‘믿음’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실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노년과 다가오는 죽음을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쉽게 받아들일까? 투르니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죽음의 수용을 종교적인 문제로 보기보다 심리적인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행동이 이성과 의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와 감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과학적 사실로 들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불안을 표현한 인간 본성을 살았고 죽음의 불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셨듯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유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불안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굳게 믿는 것이다. 투르니에는 여러 철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견해들을 비교 소개하며 죽음의 경험을 통과한 후에 도달할 수 있는 환희의 부활에 대해 독특하고 탁월한 기독교적 변증을 하고 있다. 죽음의 수용이 죽음을 변화시키며, 죽음은 부활을 위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사건임을 설명하고 있다. 영생은 죽음으로 끊겨진 불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음을 통과



하는 연결된 삶이다. 투르니에는 예수께서 죽음을 통과하여(through death) 완성하신 것처럼 죽음은 생명의 단절이 아니라 영생으로의 여정이라는 믿음을 설득력 있게 변증하며 『노년의 의미』를, 『인생의 사계절』로 치자면 “가을에서 겨울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 V

이 책은 노년의 문제의 사회역학적인 관계를 살피는 일에서부터, 여가활동을 문화적 의미와 가치로 승화시키는 과정으로 노년의 의미, 그리고 죽음의 수용을 통해 죽음을 변화시키는 경지까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연결함으로써 ‘곧 알게 될 영역’인 종교적 영역까지를 잘 정리해 놓은 교과서 같은 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준비되지 않은 채 노년과 조우하여 절망적 상황으로 빠져들 때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상황에 따른 단편적인 조언의 글들과는 달리 노년의 문제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했다는 의미에서 이 책은 교과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